

##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 (로마서 5:1-1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5:1-2)

바울은 먼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5:1)고 선언한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은 인간이 스스로 쌓아 올린 공로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값없이 주어진 은혜이다. 이어서 그는 “이를 인하여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서서 하나님을 통하여 누리는 화평으로 자랑하노니”(5:2)라 하며,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과 자랑이 삶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에 있음을 강조한다. 개역한글판이 ‘즐거워하느니라’로 번역한 부분은, 바로 이 ‘화평’—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궁극적 신뢰의 대상임을 드러낸다.

3절과 4절에서는 고난의 의미가 전환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앞서로다”(5:3-4). 이 구절은 고통 자체를 미화하거나 고난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연단된 믿음이 인내를 낳고, 그 인내가 소망을 굳건히 한다는 신학적 통찰을 제시한다. 일상의 고민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희망, 즉 언젠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성숙해져 가게 한다.

5절은 앞서 언급한 소망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확실한 보증을 동반함을 강조한다. “소망이 실망하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5:5).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와 소망의 진실성을 보증하는 담보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부어 주시는 역사이다. 이 사랑은 지식이나 교리 차원을 넘어, 매일의 삶을 인도하는 내적 동기이자 힘이 된다

로마서 5장 1-5절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고난을 통해 소망이 심화되며, 성령이 사랑의 보증이 된다’는 구조를 제시했다면, 6-11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불변의 확실성을 지니는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 보인다. 이 사랑은 인간의 주관적 감정이나 조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구속 사역에 기초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6-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아직 능력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한 때에 죽으심으로”(5:6) 시작된 구속의 사건을 강조한다. 인간이 죄의 노예로 얽매어 있었고, 스스로 구원을 이룰 능력이 전혀 없을 때—곧 의와 공로를 쌓기 이전에—하나님께서 먼저 불경건한 자들을 위해 사랑을 실행하셨다(5:8). 이처럼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은 인간 쪽의 어떤 매력이나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서 나온 구원 사업이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흔들림 없이 확신할 수 있다.

바울은 이어지는 9-11절에서 '병행 논증(parallel argument)'을 구사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즉"(5:9) 이미 죽음에 이르러 할 죄의 형벌에서 건짐을 받았거늘, 훨씬 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5:10)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확률은 더욱 확실하다. 더 나아가, 이전에는 전적으로 적대적이던 인간—하나님을 대적하던 죄인들—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화해를 이루셨다면, 살아 계신 구주와 교제하는 지금은 어떠한 환난이나 사망의 권세로부터도 결코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믿는 자의 '즐거움'—참된 화평의 표현—이 영속적이고 안전함을 확증한다.

로마서 5장 1-11절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라는 한 가지 주제를 다각도로 조명하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소망의 구조를 통합적으로 보여 준다. 첫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는 은혜 안에 서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즉 '화평'을 누린다(1-2절). 둘째, 고난과 환난은 고통 그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을 더욱 견고히 하는 과정이다(3-4절). 셋째, 이 소망은 결코 공허하지 않으며, 성령의 내주하심이 그 진실성을 보증한다(5절). 넷째,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자격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근거로 하며, 우리가 결단하기 이전에 이미 '먼저' 이루어진 사랑이기에 그 확신이 흔들림이 없다(6-8절). 다섯째, 죽음의 형벌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더욱 온전히 구원될 것은 분명하며, 이는 화해가 단일·일방적 하나님의 선행에서 비롯됨을 확인시켜 준다(9-11절).

이러한 논증의 흐름은 단순한 교리적 진술을 넘어, 실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마주하는 고난을 소망으로 바꾸는 신학적 모델을 제시한다.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희망, 성령 안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은 믿는 자로 하여금 '영속하는 화평'을 누리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적 평화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며(καυχάομαι), 모든 형편 속에서도 변함없는 소망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평화와 소망, 사랑의 삼중적 체험은 곧 복음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는 근본 토대이다.